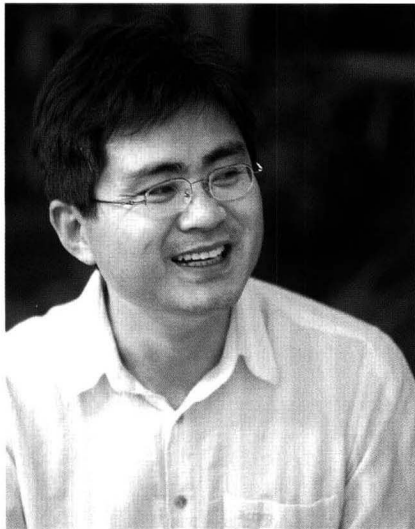


‘벗기고 발라내고’, 중국인의 상상력을 요리하는 즐거움



한때 《삼국지》가 대학입시를 등에 업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중국고전은 볼 것 많은 세상에 글방과 장롱에서 억지잡을 자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고전 중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의해 번역된 작품이 《삼국지》와 《금병매》, 그리고 《서유기》 등 몇 작품 안 된다는 사실은 중국고전과의 거리를 더욱 넓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옛 중국인들의 여섯 가지 과학적 상상’이라는 부제로 중국소설에 나타난 SF적인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 《하늘을 나는 수레》는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단숨에 좁힌 흥미로운 작품이다. 저자인 홍상훈 씨(38)는 《중국고대과학사中國古代科幻故事》와 《태평광기太平廣記》와 같은 고대자료와 《청말민초소설서계清末民初小說書系》 《중국과학환상문학관中國科學幻想文學館》 등 고문헌에 있는 내용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비슷한 내용을 모아 다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했다. 액면 그대로 옮겨놓고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 마치 단편이나 엽편

소설처럼 짜임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

“출판사에 중국과 관련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피하고 좀더 쉽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시리즈를 내보는 게 어떨겠냐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출판사의 반응은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필자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중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홍씨라고 해서 별수는 없었다. 클래식음악 전공자가 대중가요에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듯 한문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선비기질이 몸에 배게 되고, 설령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미 고어투의 문장이 몸에 배어 현대 감각에 맞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물론 고전소설을 현대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 가지고 책을 낼 생각은 못했습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중국 고전소설 강의를 들으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강의 참고자료로 준비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정서에 맞추다 보니 SF적인 소재를 모으게 된 거구요.”

중국인들이 발견한 화약, 종이, 인쇄술이 현대산업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비행기와 인조인간, UFO와 외계인, 컴퓨터 그리고 의술. 상식적으로 유럽의 과학사에서나 소개될 법한 소재들이 중국문학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뜻밖이다. 실제로 정재서(이화여대) 교수가 《사이보그서사의 기원, 역사 그리고 비교학적 성찰》이라는 논문에서 소개한 인조인간을 빼면 나머진 국내에



《하늘을 나는 수레》 홍상훈 저 | 술 | 226쪽 | 값 9,000원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었다.

“중국은 그 넓은 땅만큼이나 문화자체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자강 유역은 도가사상의 발원지로 새를 타고 날아가는 신선의 이야기가 많았고 황하 이북의 중원은 유목민들과의 접점지대로 전쟁이 많아 성을 공격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대한 연구가 많았죠. 이 둘이 만나 ‘하늘을 나는 수레’라는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방의 나는 도구에 대한 발상과 북방의 기계장치에 대한 연구가 합쳐져서 수레를 하늘로 보낸 것이다. 단지 서구와 같이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고대중국인들의 과학적 발견과 그것에 관련된 상상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홍씨는 비록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고 겸손해하지만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세 가지 재미를 선사한다. 고대 중국인들의 상상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전달과 서구중심 과학적 사고에 대한 발상의 전환, 그리고 저자가 각색한 고전 문헌을 읽는 재미가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홍씨가 한문이라는 가죽을 벗기고 중국어라는 뼈를 발라낸 그들의 상상력을 독자 스스로 구미에 맞게 요리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